

# 李白<贈>詩 譯解 및 考察(10)

— 제39수에서 제41수까지

조성천\*

## <목 차>

1. 서론
2. 본론
  - 2.1 제39수 新平의 젊은이에게 주며
  - 2.2 제40수 崔侍御에게 드리며
  - 2.3 제41수 빠른 붓 놀려 獨孤 부마에게 드리며
3. 결론

## 1. 서론

李白의 가장 이른 시문집은 唐代 李陽冰이 편찬한 《草堂集》 10권이었는데 散逸되었다. 현재 통행본은 '宋蜀本'으로 北宋 宋敏求(1019~1079)가 증각한 《李太白文集》 30권이다. 송축본 《이태백문집》은 '古風' 59수와 樂府詩를 실은 후 그 다음부터는 내용별로 歌吟, 贈詩, 寄詩, 別詩, 酬答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元代 蕭士贊의 《分類補注李太白詩》, 清代 王琦의 《李太白詩集注》 등의 주요 판본도 이러한 형식을 취하였다. 송축본 《이태백문집》 제8권에는 '贈詩'를 설정하여 123수를 실었다. '贈詩'란 자신이 느낀 바, 표현할 바, 생각한 바가 있을 때는 그것을 시로 써서 친구 및 지인에게 보내어 자신의 감정과 뜻을 기탁하는 것이다. 때문에 시의 제목에 '贈'字가 들어간 경우가 많다. 이백의

\* 을지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sczhao@hanmail.net)

‘贈詩’에서는 그가 시를 통해서 표현한 情志나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 교제한 친구나 지인 등과의 관계 및 교류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이백의 ‘贈詩’ 완역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된다.

본고는 이백의 ‘贈詩’ 제39수에서 제41수를 역주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底本은 ‘宋蜀本’을 위주로 하고, 그 형식은 원문을 제시하고 번역을 하고 주석을 달며 이어 校記, 詳釋, 解說을 붙였다. 번역은 자구의 직역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미의 순통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의역을 하였다. 또한 시적인 어감을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주석은 자구의 풀이는 물론 그와 관련된 用例 및 典故 등을 들어 설명하고, 典籍의 원문을 게재하여 번역함으로써 학술성을 제고하였다. 校勘은 詹鍈 主編의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을 기본으로 하되 새로운 교감이 있을 경우 추가하였다. 詳釋은 逐字 번역을 더욱 상세하게 보충하면서 행간의 함의를 풀어내어 설명하였다. 解說은 시에 대한 해제, 연대, 역대 의견 등을 덧붙여 전체 시를 해설하여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국내번역본에 비해 상세하고 학술적인 내용을 增補하고 또한 새로운 의견도 제시함으로써 국내 이백 시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詹鍈 主編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 외에 국내 이영주·임도현·신하운 역주 《이태백 시집》 및 국외 王琦 注 《李太白全集》, 瞿蛻園·朱金城 校注 《李白集校注》, 安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 郁賢皓 校注 《李太白全集校注》 및 郁賢皓 注譯 《新譯李白詩全集》 등을 참고하고 검토하여 그 이동을 고찰하였다.

## 2. 본론

### 2.1 제39수 新平의 젊은이에게 주며(贈新平少年)<sup>1)</sup>

韓信在淮陰,	한신이 회음에 있을 때
少年相欺凌. <sup>2)</sup>	젊은이들 서로 업신여겼지.
屈體若無骨,	जू대 없듯 굽신거렸지만
壯心有所憑. <sup>3)</sup>	큰 뜻 품고 믿는 바 있었네.
一遭龍顏君, <sup>4)</sup>	용안의 임금 만나자

- 1) 新平: 唐代 縣 이름. 지금의 陝西 林縣. 《元和郡縣志》 卷三 <關內道邠州>에 다음 내용이 있다. “隋 大業 2년(606)에 省이 寧州로 들어갔다. 義寧2년(618)에 다시 新平郡이 되었다. 武德원년(618)에 다시 邠州가 되었다. 開元13년(725), ‘邠’과 ‘幽’자가 서로 관련되어, ……‘邠’으로 고쳤다. 天寶 원년(742년)에 다시 信平郡이 되었고, 乾元 원년(758년)에 다시 邠州가 되었다. ……현 4개를 관할하였는데, 新平·三水·永壽·宜祿이다.(隋大業二年省入 寧州, 義寧二年復爲新平郡, 武德元年復爲邠州. 開元十三年, 以邠與幽字相涉, ……改爲‘邠’字. 天寶元年改爲信平郡, 乾元元年復爲邠州. ……管縣四: 新平·三水·永壽·宜祿.)” 이로써 新平은 縣이었다가 다시 郡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韓信在淮陰, 少年相欺凌.”二句: 韓信이 淮陰에 살 때, 시경배들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서 나와 조롱을 당한 고사를 인용하였다. 《史記·淮陰侯列傳》에 다음 고사가 있다. “회음 땅의 백성 중에 한신을 멸시하는 젊은이가 한신에게 말했다. ‘네가 비록 장대하고 칼을 차고 다기를 좋아하나 속마음은 겁쟁이일 뿐이다.’ 또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며 말했다. ‘네가 죽을 용기가 있으면 나를 찌르고, 죽을 용기가 없다면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도록 하라.’ 이에 한신은 그를 한참 쳐다보다가 몸을 굽혀 가랑이 밑으로 기어나갔다. 거리의 모든 사람이 한신을 비웃으며 그를 겁쟁이라 여겼다.(淮陰屠中少年有侮信者曰: ‘若雖長大, 好帶刀劍, 中情怯耳.’ 衆辱之曰: ‘信能死, 刺我, 不能死, 出我袴下.’ 於是, 信熱視之. 俛出袴下, 蒲伏. 一市人皆笑信, 以爲怯.)”
- 3) “屈體若無骨, 壯心有所憑.”二句: 한신이 몸을 굽혀 가랑이 밑으로 기어간 것은 기백이 없는 것 같았지만, 실은 그의 가슴에는 웅대한 심지가 있어 장래에 이를 발휘하기 위함이었다. 詹鍇는 “屈體若無骨, 壯心有所憑.” 2구는 “당시에 한신이 달갑게 모욕을 감내한 것은 志氣가 없어서가 아니라, 장래에 웅대한 心志를 펼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詹鍇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1423쪽) ○屈體·無骨: 이에 대한 전고가 潘岳 <西征賦>의 “들어와서 廉頗에게 절개를 굽힌 것이, 마치 사지에 뼈가 없듯이 하였네(入屈節於廉公, 若四體之無骨.)”에 있다. ‘屈體’, ‘憑’에 대해, 朱諫은 “屈體란 몸을 아래로 굽히는 것으로, 낮춤이 심한 것이다. ……憑은 의지한다는 것으로, 믿고 있는 바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屈體者, 屈下其體, 卑遜之甚也. ……憑, 依也, 猶言有所主也.)”고 했다.(詹鍇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1423쪽, 재인용) ○壯心: 마음에 품은 훌륭한 큰 뜻.

嘯吒從此興, <sup>5)</sup>	명성이 이로부터 나왔네.
千金答漂母, <sup>6)</sup>	빨래하던 아낙에게 천금으로 보답하니
萬古共嗟稱.	만고토록 모두 칭찬하였네.
而我竟胡爲,	그런데 난 대체 무엇 하고 있나
寒苦坐相仍. <sup>7)</sup>	곤궁만 계속 이어지네.
長風入短袂,	짧은 소매에 장풍 들어오니
內手如懷冰. <sup>8)</sup>	소매 속 손 얼음 쥐는 듯하네.

- 4) 龍顏君: 漢高祖 劉邦을 말한다. 《史記·高祖本紀》에 “고조의 생김은 콧날이 오뚝하고 용의 얼굴 같았다(高祖爲人隆準而龍顏.)”라고 했다. 郁賢皓는 “隆準은 코가 높은 것을 말하고, 龍顏은 관자놀이 중간이 돌출한 것을 말한다”라고 했다. (郁賢皓, 《新譯李白詩全集》(上) 臺北, 三民書局, 2011, 480쪽)
- 5) 嘯吒: ‘嘯吒’과 같다. 큰 소리로 부르짖다. 다른 사람을 경외하게 하는 명성과 위엄을 형용. 晉 袁宏의 《後漢紀·光武帝紀論》에 “비록 강한 나라라도 일시의 세력을 떨칠 수 없고, 호걸 지사라도 큰 소리로 부르짖는 마음을 달리게 할 곳이 없다. (雖疆毅之國不能擅一時之勢, 豪傑之士無所騁嘯吒之心.)”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嘯吒’은 큰 소리로 부르짖음. 즉 사람을 敬畏하도록 하는 명성과 위엄을 말한다. 朱諫은 “嘯吒은 뜻을 얻은 모양이다(嘯吒, 得志之狀也.)”라 했다. (詹鏜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424쪽.) 郁賢皓는 “사람들을 경외시키는 명성과 위엄”이라고 했다. (郁賢皓, 《新譯李白詩全集》(上), 臺北: 三民書局, 2011, 480.)
- 6) “千金答漂母”句: 한신이 淮陰으로 돌아와서 漂母에게 천금으로 보답한 것을 전고로 사용하였다. 《史記·淮陰侯列傳》에 다음 고사가 있다. “한신이 성 아래서 낚시를 하는데, 여러 빨래하는 아낙 중에, 한 아낙이 한신이 굶주린 것을 보고서 한신에게 밥을 주었는데, 빨래를 다 할 때까지 수십 일을 그렇게 했다. 한신이 기뻐하며, 빨래하는 아낙에게 말하길, ‘내가 만드시 몇 배로 아낙에게 보답할 것이오’ 하니, 아낙이 화를 내며 말하길, ‘사대 대장부가 제 힘으로 살아가지도 못하기에, 내가 젊은이를 가엾게 여겨 식사를 주었기로, 어찌 보답을 바랄까!’라 했다. …… 한신은 고향 회음의 새로운 봉곡에 이르자, 먼저 자신에게 밥을 주었던 그 빨래하던 아낙을 찾아 천금을 주었다. (信釣於城下, 諸母漂, 有一母見信飢, 飯信, 竟漂數十日. 信喜, 謂漂母曰: ‘吾必有以重報母.’ 母怒曰: ‘大丈夫不能自食, 吾哀王孫而進食, 豈望報乎! …… 信至國, 召所從食漂母, 賜千金.)
- 7) “寒苦坐相仍”句: 곤궁이 계속 이어지다. ○寒苦: 嚴寒과 곤궁. ○坐相仍: 계속해서 반복되다. 계속해서 일어난다. 《文選》卷 28 鮑照《白頭吟》의 “시기와 미움이 서로 끊임없이 이어지네(猜恨坐相仍.)”에 대하여, 李善이 “《爾雅》에서는 仍을 因이라 하였다(《爾雅》曰: 仍, 因.)”라고 주석하였다. ‘仍’을 ‘因’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그러나 朱諫은 “仍은 거듭(重)이니, 거듭(重), 함께(并)라고 하는 것과 같다. (仍, 重也, 猶言重, 并也.)”라고 했다. (詹鏜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1425쪽) 詹鏜은 좌(坐)를 ‘마침(正)’으로, 郁賢皓는 ‘坐’를 ‘마침, 바로(正, 恰恰), ‘仍’을 ‘頻繁’, ‘重複’으로 풀이하였다. (郁賢皓, 《新譯李白詩全集》(上), 臺北: 三民書局, 2011, 480쪽) 詹福瑞 등의 주에서는 ‘相仍’을 ‘相繼’ 즉 ‘서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詹福瑞 等譯, 《李白詩全譯》,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7, 365쪽)
- 8) “內手如懷冰”句: 漢樂府古辭《善哉行》에 “애석하게도 소매가 짧아, 옷 소매의 손이 차가움을 느끼는구나(自惜短, 內手知寒.)”에 전고가 있다. 이에 대해, 郁賢皓는 “‘內’는 ‘衲’과 통한다. …… ‘衲手’는 ‘袖手’이다”라고 했다. (郁賢皓, 《新譯李白詩全集》(上), 臺北: 三民書局,

故友不相恤,	옛 친구도 가여워하지 않거늘
新交寧見矜!	새 친구가 어찌 불쌍히 여길까.
摧殘檻中虎, <sup>9)</sup>	함정 속 호랑이처럼 꺾이고
羈縲韝上鷹, <sup>10)</sup>	토시 위 매같이 묶여있네.
何時騰風雲, <sup>11)</sup>	언제라야 바람 구름 타고 솟아올라
搏擊申所能, <sup>12)</sup>	하늘에서 날개 치며 능력 펼칠까.

## &lt;校記&gt;

제목 중 ‘平’ 아래, 송측본에는 “어떤 곳에는 豐으로 되어 있다(一作豐)”라는 주가 있다. 그러나 咸本<sup>13)</sup> · 蕭本<sup>14)</sup> · 玉本<sup>15)</sup> · 郭本<sup>16)</sup>의 제목에는 이 주가 없다. 제6구 ‘嘯吒’의 ‘吒’이 咸本 · 蕭本 · 郭本 · 王本<sup>17)</sup>에는 모두 ‘咤’로 되어 있고, ‘從此興’의 ‘興’이 咸本에는 ‘昇’으로 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興으로 되어

2011, 480쪽) ○懷冰: 얼음을 품는다. 차가움을 형용. 晉 張華<雜詩>의 “점점의 이불에도 온기가 없고, 숨을 끼고 있어도 얼음을 품고 있는 것 같네. (重衾無暖氣, 挾纈如懷冰.)”에 용례가 있다.

- 9) 檻中虎: 함정 속 호랑이. 《漢書·司馬遷傳》에 다음 고사가 있다. “사나운 호랑이가 깊은 산중에 있을 때는 온갖 짐승들이 두려워 떨지만,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서 꼬리를 흔들며 먹을 것을 구하면, 이것은 쌓은 위세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猛虎在深山, 百獸震恐, 及在檻穽之中, 搖尾而求食, 積威約之漸也.)”
- 10) 韝上鷹: 토시 위의 매, 팔찌 위의 매. 鮑照 <代東武吟>의 “예전엔 토시 위의 매와 같았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갇힌 원숭이 신세로세. (昔如韝上鷹, 今似檻中猿.)”에 용례가 있는데, 劉良이 “韝은 가죽으로 손을 덮어 매를 팔에 올리는 것이다. (韝, 以皮蔽手而臂鷹也.)”라고 주석하였다. 두보 <去矣行>의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사냥꾼의 토시에 앉은 매. (君不見韝上鷹.)”에서도 이를 사용했다. 朱諫은 “韝는 팔찌이다. (韝, 臂衣也.)”라고 했다.
- 11) 騰風雲: 풍운으로 솟아올라 날다. 풍운을 타고 솟아오른다. 《文選》 권 45 班固 <答賓戲>의 “끝내는 神龍처럼 그 首尾를 펼칠 수 없고, 翼鱗을 펼칠 수 없다. 진창에서 멀쳐 일어서, 풍운으로 솟아 올라가, 보는 자가 설사 그림자 일지라도 놀라게 하고, 음향일지라도 움직이게 하리. (卒不能據首尾, 奮翼鱗, 振拔塗塗, 跨騰風雲, 使見之者景駭, 聞之者響震.)”에 용례가 있다.
- 12) 搏擊: 치고 두드리다. 《莊子·逍遙遊》의 “붕은 남쪽 큰 바다로 옮겨갈 때 물은 삼천 리를 치고, 회오리바람을 두드리며 구만리를 날아오른다. (鵬之徒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搏夫搖而上者九萬里.)”에 용례가 있다.
- 13) 明 鮑松이 編한 正德八年(서기 1513년) 自刻本 《李杜全集》 83권 중의 《李翰林集》 30卷.
- 14) 元刻本 《分類補注李太白詩》 25卷.
- 15) 嘉靖25年(서기 1545년) 玉几山人의 校本 《分類補注李太白詩》 25卷.
- 16) 《四部叢刊》을 영인한 郭雲鵬의 《分類補注李太白詩》 30卷.
- 17) 乾隆間(서기 1736년-1796년)에 출판된 王琦가 주석을 한 《李太白文集》 36卷 및 1977년 中華書局的 校刊本 《李太白全集》.

있다(一作興)”라는 주가 있다. 제8구 ‘胡爲’의 ‘胡’가 송축본에는 “어떤 곳에는  
 何로 되어 있다(一作何)”라는 주가 있다. 蕭本·玉本·郭本·劉本·朱本<sup>18)</sup>·  
 全唐詩本<sup>19)</sup>·王本에는 모두 ‘何’로 되어 있다. 제12구 ‘內手’의 ‘內’가 송축본에  
 는 “어떤 곳에는 兩으로 되어 있다(一作兩)”라는 주가 있다. 咸本·蕭本·玉  
 本·郭本·朱本·全唐詩本에는 모두 ‘兩’으로 되어 있고, ‘手’가 朱本에는 ‘袖’로  
 되어 있다. 제18구 “申所能”의 ‘申’이 咸本·蕭本·玉本·郭本·劉本·朱本에는  
 모두 ‘申’으로 되어 있고, 劉本에는 “申所能은 어떤 곳에는 申所能으로 되어 있  
 다(申所能一作申所能)”라는 주가 있다.

### <詳釋>

한신이 회음에 있을 때, 시정의 젊은이들이 서로 그를 업신여겼었다. 그가  
 몸을 굽혀 가랑이 밑으로 기어간 것은 기백이 없는 것 같았지만, 실은 그의  
 가슴에는 웅대한 심지가 있어 장래에 이를 발휘하기 위함이었다. 그가 한 고조  
 와 같은 용안의 천자를 만나자, 그의 명성과 위엄이 이로부터 나왔다. 그의 뜻  
 을 이루고서, 그는 그 옛날 자기를 도와주었던, 빨래하던 아낙에게 천금으로  
 보답하니, 영구토록 모두에게 칭찬을 받았다. 아! 그런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 된 추위와 곤궁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내 짧은 소매에  
 차가운 장풍 들어오니, 소매 속에 넣은 손은 마치 얼음을 쥐고 있는 듯하다.  
 이런 내 처지를 옛 친구도 가여워하지 않는데, 하물며 새 친구가 어찌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돌아보아 줄 수 있겠는가. 나는 마치 함정 속 호랑이처럼 의기  
 가 꺾이고, 토시 위 매처럼 묶여 있다. 언제라야 풍운을 타고 솟아올라서, 하늘  
 에서 날개 펼치며 내 능력을 펼칠 수 있을까.

### <解説>

이 시의 창작연대를, 郁賢皓의 《李白選集》에서는 開元19년(731), 安旗의

18) 隆慶六年(서기 1572년)에 간행된 朱諫의 《李詩選注》 13卷 및 《李詩辨疑》 2卷.

19) 乾隆間(서기 1736년-1796년)에 출판된 王琦가 주석을 한 《李太白文集》 36卷 및 1977  
 년 中華書局的 조판본 《李太白全集》.

《李白全集編年注釋》에는 開元18년(730), 詹福瑞 등은 개원 말년으로 보았다. 詹鏞은 창작연도를 말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 ‘서쪽으로 長安에 들어와, 조정 모습 보네(西入秦海, 一觀國風.)(<上安州裴長史書>)’의 시기에 지은 것 같다”라고 했다. <上安州裴長史書>가 《李白選集》에 의거하면, 개원18년(730)에 지은 것이다. 때문에 詹鏞도 이 시를 개원18년에 지은 것으로 보았다. 이백은 개원18년에 안록에서 출발하여 양양·남양·내향·상락·남전을 거쳐 장안으로 들어와, 자기 뜻을 펴고자 했지만,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개원20년에 안록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 시는 이백이 개원18년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장안으로 들어왔지만, 그 당시 현실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곤궁에 처한 상황과 신세 및 갈망을 드러내었다.

첫 단락(“韓信在淮陰”~“萬古共嗟稱”)은 한신의 전고를 통해,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포부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시인은 현재 자신은 困頓으로 치욕을 받고, 현실에서 ‘龍顏君’을 만날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둘째 단락(“而我竟胡爲”~“羈紲繫上鷹”)은 자신의 ‘寒苦’의 상황, 가련한 자신이 마치 ‘함정 속 호랑이’, ‘토시 위 매’라고 하였다. 끝 두 구(“何時騰風雲”~“搏擊申所能”)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자 하는 갈망을 드러냈다.

이 시는 당시 시인의 곤궁 및 갈망을 이해할 수 있다.

## 2.2 제40수 崔 侍御에게 드리며(贈崔侍御)<sup>20)</sup>

長劍一杯酒,

장검 쥐고 술 한잔 마시며

20) <贈崔侍御>의 제목으로 “黃河三尺鯉”로 시작하는 시가 있다. 이에 대한 역주 및 崔侍御 즉 崔成甫에 관한 내용은 趙成千·趙得昌<李白<贈>詩 譯解 및 考察(6)~(제27수에서 제29수까지)>(《중국학논총》 제65집)참고. 이백의 시집 가운데 최성보에게 쓴 시가 11수 정도이다. 이 시들은 대부분 金陵 일대에서 지은 것이다. 이백의 문집 가운데 <澤畔吟序>가 있는데, 이는 최성보의 시집 <澤畔吟>에 이백이 서문을 붙인 것이다. 최성보도 이백에게 준 시가 있는데 <贈李十二白>이 그것이다. 이백 시 가운데 최성보에 관한 고찰은 郁賢皓의 <李白詩中崔侍御>(《天上謫仙人的秘密-李白考論集》에 수록)가 있다.

男兒方寸心. <sup>21)</sup>	남아 가슴 속 마음을 드러내네.
洛陽因劇孟,	극맹과 같은 의협 지녔기에 낙양에서
託宿話胸襟. <sup>22)</sup>	객사 빌어 묵으며 흉금 토로했네.
但仰山嶽秀,	산악처럼 빼어난 풍모만 우러러보았지
不知江海深. <sup>23)</sup>	강과 바다처럼 깊은 마음 몰랐네.
長安復攜手,	장안에서 다시 손 맞잡고
再顧重千金.	재회하니 천금보다 귀중하네.
君乃輜軒佐,	그대 감찰어사 되고
余叨翰墨林. <sup>24)</sup>	난 외람되이 한림봉공 되었지.

- 21) 方寸心: 방촌의 마음. 寸心과 같은 말이다. 마음(心)이 흉중의 方寸사이에 있으므로 이처럼 말한 것이다. 《三國志》卷35 <蜀書·諸葛亮傳>에 용례가 있다. “제가 본래는 장군 그대와 함께 王霸의 사업을 도모하려고 하였습니다. 믿는 바는 이 방촌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이미 나의 노모를 잃고, 방촌의 마음도 혼란해졌습니다.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고별을 간청합니다. (本欲與將軍共圖王霸之業者, 以此方寸之地也. 今已失老母, 方寸亂矣, 無益於事, 請從此別.)”
- 22) “洛陽因劇孟, 託宿話胸襟.”二句: 郁賢皓는 이 두 구에 대해 “이백이 최성보와 처음 만난 것은 洛陽임을 말한다. 성보 부친 崔岳이 開元 연간에 東都 副留守를 지냈다. 집이 洛陽이었는데, 成甫의 출사하기 이전 및 그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 居喪기간 모두 낙양에서 생활했다. 이백이 그와 처음 알게 된 것은 이 기간이다”고 했다. (郁賢皓, 《新譯李白詩全集》(上), 臺北: 三民書局, 2011, 483쪽.) ○劇孟: 《漢書·遊俠傳》에 다음 내용이 있다. “劇孟은 洛陽 사람이다. 낙양 일대 사람들은 장사로 생계를 삼았지만, 劇孟은 遊俠으로 드러났다(劇孟者, 洛陽人也. 周人以商賈爲資, 劇孟以俠顯.)”
- 23) “但仰山嶽秀, 不知江海深.”二句: 최성보의 풍모와 흉금을 형용한 것이다. ○山嶽秀: 최성보의 풍모가 優美함을 형용. ○江海深: 최성보의 胸襟을 형용. 詹鏞은 이 두 구에 대해 “崔侍御에 대한 품덕은 그 고상함과 심원함을 헤아릴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謂對崔侍御의品德不能測其高尚深遠.)”라고 했다. (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1428쪽.) 安旗는 “山嶽秀는 그의 풍채를 말하고, 江海深은 그의 흉금을 이른다(山嶽秀謂其風標, 江海深謂其胸次.)”라고 주석하였다. (安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 成都: 巴蜀書社, 1990, 679쪽.) 위 여섯 구에 대해, 薛天緯는 “최성보와 처음 왕래한 것을 추억한 것으로, 이백이 처음 장안에 들어가, 조금 지난 뒤, 개원 28년 봄에 洛陽에서 함께 노닐 때이다”라고 주석하였다. (薛天緯, 《李白詩選》,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7, 125쪽.)
- 24) “長安復攜手, 再顧重千金. 君乃輜軒佐, 余叨翰墨林.”四句: 郁賢皓는 이 사 구에 대해 “天寶초에 이백이 조서를 받들어 경사로 들어가서, 그(최성보)와 두 번째로 보게 된 것이다. 당시 최성보는 감찰어사 보좌를 할 때이고, 이백은 마침 한림봉공이었다”라고 하였다. (郁賢皓, 《新譯李白詩全集》(上), 臺北: 三民書局, 2011, 483쪽.) ○再顧重千金: 《文選》권 30 謝朓<和王主簿怨情>의 “平生 한 번 돌아보는 은총이 귀중하지, 옛날에 준 천금은 귀중하지 않네(平生一顧重, 宿昔千金賤)”에 용례가 있는데, 여기에 李善이 “曹植의 시에 이르길, 한 번의 은총이 천금처럼 귀중하지, 어찌 꼭 주옥과 같은 돈이리라 했다(曹植詩曰: ‘一顧千金重, 何必珠玉錢.’)”라고 주석하였다. 朱諫은 “再顧는 再會의 뜻이다(再顧, 再會也)”라고 했다. (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428쪽, 재인용) ○輜軒佐: 輜軒는 관리가 타는 輕車. 나중에는 자주 공무출장을 나가는 어사대 관리를 輜軒 혹은 輜軒使라

高風摧秀木, <sup>25)</sup>	높은 바람이 빼어난 나무 꺾으니
驚彈落虛禽.	빈 활소리에도 놀란 새 떨어지네.
不取回舟興, <sup>26)</sup>	흥 다했다 배 돌려오지 않고

고 하고, 어사대 장관을 ‘憲車’라고 했다. 王琦는 “이백이 <崔公澤畔吟詩序>를 지었는데, 그 가운데 ‘中佐憲車’라는 말이 있다. 이는 최성보가 使副가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君乃輜軒佐’라는 말이 있게 된 것이다(太白作<崔公澤畔吟詩序>, 有‘中佐憲車’之語, 是崔嘗以事爲使副, 故曰‘君乃輜軒佐.’)”라고 주석하였다.(王琦 輯注, 《李太白全集》, 北京, 中華書局, 1977, 505쪽.) 郁賢皓는 “輜軒佐는 바로 <澤畔吟序> 가운데 ‘佐於憲車’로 ‘攝監察御史’의 뜻이다(輜軒佐即<澤畔吟序>中的‘佐於憲車’, 攝監察御史之意.)”라고 주석하였다.(郁賢皓, 《新譯李白詩全集》(上), 臺北: 三民書局, 2017년, 482쪽) 詹福瑞 등은 “輜軒佐는 監察 御使를 맡는다는 의미이다. ……監察 御使는 御使大夫의 아래 등급이기 때문에 輜軒佐라고 했다(輜軒佐: 卽任監察御史的意思……監察御史乃御史大夫的下級, 故稱輜軒佐.)”라고 주석하였다.(詹福瑞 等譯, 《李白詩全譯》,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7, 366쪽.) ○“余叨翰墨林”句: 자신이 한림봉공에 있었음을 말한 것이다. ○叨: 외람되이. 겸사.

- 25) “高風摧秀木, 驚彈落虛禽.”二句: 조정에서 참소 받음을 말한 것이다. <文選> 53 李康의 <運命論>에 “때문에 나무가 숲에서 빼어나면, 바람이 반드시 그것을 꺾는다(故木秀於林, 風必摧之.)”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劉良은 “나무가 숲에서 높고 빼어났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먼저 꺾는다(木高出於林上者, 故風吹而先折也)”라고 주석하였다. ○“驚彈落虛禽”句: 이 구는 “虛彈落驚禽”으로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주석한다. 이는 更羸의 고사를 인용했다. <戰國策·楚策四>에 다음 내용이 있다. “이전에 更羸(역주: ?-?, 전국 시기 위나라 명궁수)가 魏王과 높은 대 아래에서 있었다. 更羸가 고개를 들어 공중의 날아가는 새를 보며, 魏王에게 ‘신이 대앙을 위해 빈 활시위를 당겨, 새 한 마리를 내려오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했다. 이에 魏王이 ‘그러면, 그대 활 솜씨가 이렇게 높은 경지에 이르렀는가?’라고 했다. 更羸이 ‘그렇습니다’라고 했다. 얼마 있어 기러기 한 마리가 동쪽에서 날아오자, 更羸이 빈 활시위를 당겨 쏘았는데도, 기러기가 땅에 떨어졌다. 魏王이 ‘그대 활 솜씨가 이렇게 높은 경지에 이르렀는가?’라며 놀라 말했다. 更羸이 ‘이는 상처를 입었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는 기러기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魏王이 ‘그대는 어떻게 아는가?’라고 했다. 更羸이 ‘이 기러기가 천천히 날고, 슬피 울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나는 것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고, 슬피 우는 것은 오랫동안 무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랜 부상이 아직 낫지 않았고, 놀란 두려움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에, 활시위 소리를 듣기만 해도 급히 날개를 펴서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려 힘쓸수록) 상처가 재발하여 그만 떨어지게 됩니다’라고 대답했다.(異日者, 更羸與魏王處京臺之下, 仰見飛鳥. 更羸謂魏王曰: ‘臣爲王引弓虛發而下鳥.’ 魏王曰: ‘然則射可至此乎?’ 更羸曰: ‘可.’ 有間, 雁從東方來, 更羸以虛發而下之. 魏王曰: ‘然則射可至此乎?’ 更羸曰: ‘此孽也.’ 王曰: ‘先生何以知之?’ 對曰: ‘其飛徐而鳴悲. 飛徐者, 故瘡痛也; 鳴悲者, 久失群也, 故瘡未息, 而驚心未去也. 聞弦音, 引而高飛, 故瘡墮也.’) (隋)袁郎의 <秋夜獨坐>에 “촉급한 현은 나그네 마음 끊어놓고, 빈 활시위에 놀란 새 떨어뜨리네(危弦斷客心, 虛彈落驚禽.)”라고 하였다. 朱諫은 “빈 활시위를 당겨 쏘아 놀란 새를 떨어뜨리는 것은 참소를 받고서 근심과 두려움을 품고 있는 것이다(虛彈落乎驚禽, 喻被讒而懷乎憂畏也.)”라고 했다.(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1430쪽, 재인용.)

- 26) 王子猷의 고사를 反用하였다. 王子猷가 눈 내리는 밤에 戴安道를 찾아갔다가 흥이 다하자 배를 돌려 돌아왔는데,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꼭 최성보를 찾아가 만나겠다는 의미이다. <世說新語·任誕>에 다음의 내용이 있다. “王子猷가 山陰에 살았는데, 어느 날 밤 큰

而來命駕尋, <sup>27)</sup>	수레 타고 그댔 꼭 찾으러 가리.
扶搖應借力,	회오리바람은 힘을 빌어야 하니
桃李願成陰. <sup>28)</sup>	도리 꽃 아래 그늘 이루어지길 바라네.
笑吐張儀舌,	웃으며 장의와 같은 언설 하지만
愁爲莊鳥吟. <sup>29)</sup>	근심스레 장석과 같은 悲吟 내어야 하네.

눈이 내렸다. 잠에서 깨어 문을 열고 술상을 보아 오라 이르고서, 사방을 보니 너무도 맑고 깨끗했다. 이에 일어나 이리저리 거닐며 左思의 〈招隱詩〉를 읊었다. 문득 친구 戴安道가 생각났다. 당시 대안도가 剡溪에 있었기에 바로 작은 배를 타고 찾아갔다. 날이 썰 때쯤 도착하였는데, 문에 들어가지 않고 밭길을 돌렸다. 함께 간 이가 그 까닭을 물으니, '홍에 겨워 갔다가 홍이 다해 돌아오는데 굳이 만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王子猷居山陰, 夜大雪, 眠覺開室, 命酌酒, 四望皎然, 因起彷徨, 詠左思〈招隱詩〉, 忽憶戴安道, 時戴在剡, 即便夜乘小船就之, 經宿方至, 造門不前而返, 人問其故, 王曰: '吾本乘興而行, 興盡而返, 何必見戴?')"

- 27) 命駕: 수레를 매도록 명하다. 수레를 타고 출발하다. 《左傳·哀公十一年》에 “물러나, 수레 매기를 명하여 갔다. (退, 命駕而行.)”라고 했다.
- 28) “扶搖應借力, 桃李願成陰.”二句: 薛天緯는 이 두 구가 “崔侍御의 도움받기를 원한 것이다”라고 했다. (薛天緯, 《李白詩選》,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7, 126쪽) ○“扶搖應借力”句: 이 구는 《莊子·逍遙遊》에서 나왔다. “봉이 남쪽 바다로 날아갈 때면 3천 리에 걸쳐 파도를 일으키고, 태풍을 타고 하늘로 오르기를 9만 리나 하는데, 한 번 날면 여섯 달이 지나야 쉰다. (鵬之徙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搏扶搖而上者九萬里, 去以六月息者也.)” ○扶搖: 아래에서 위로 몰아치는 거센 바람. 회오리바람. ○“桃李願成陰”句: 崔侍御의 감화력을 말한다. 《史記·李將軍列傳》의 “도리는 말하지 않아도, 아래에 저절로 길어 생긴다” 및 《說苑》卷6의 “저 도리를 심는 것은 여름에 휴식을 얻기 위함이다. (夫樹桃李者 夏得休息.)”와 관련된 전고다.
- 29) “笑吐張儀舌, 愁爲莊鳥吟.”二句: 薛天緯는 이 두구가 “張儀·莊鳥으로 자신을 비유하여, 자신이 처한 곤궁 및 집이 있어도 돌아가기 어려운 고충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했다. (薛天緯, 《李白詩選》,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7, 126쪽) 이 두 구에 대해, 王琦는 “笑吐張儀舌”는 담소를 잘함, “愁爲莊鳥吟”는 짐을 절실하게 생각함을 비유한 것이다. (笑吐張儀舌, 喻談笑之美, “愁爲莊鳥吟, 喻思家之切.”)라고 주석하였다. (王琦, 《李太白全集》, 北京, 中華書局, 1977, 506쪽) 詹福瑞·郁賢皓는 모두 “笑吐張儀舌”의 주체를 최성보, “愁爲莊鳥吟”의 주체를 이백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시는 天寶 3년 이백이 참소로 한림봉공을 사직하고 조정을 떠나면서 지은 것이며, 최성보에게 처지를 하소연하며 도움받기를 원한 것이다. 때문에, 전고 운용의 취지는 자신이 張儀와 같은 능력을 갖췄지만, 어쩔 수 없이 莊鳥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세를 면치 못함을 나타낸 것이다. 張儀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전고로, 莊鳥는 일종의 전고 反用이다. 고향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하는 처지를 이로써 나타낸 것이다. 朱諫 또한 이러한 취지로 그 함의를 드러내었다. “내가 어찌 쓸만한 재주가 없을까? 진실로 七國의 張儀처럼, 그 혀가 아직 남아 있으니, 아직도 유세 하며 부귀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장석처럼 울조리며, 저 고향을 생각한다. (我豈無可用之材? 誠如七國之張儀, 其舌尚存, 猶可以遊說而取富貴也. 然未免乎懷土之思, 故愁爲莊鳥吟, 念彼舊鄉.)” (詹鏞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1432쪽, 재인용) ○張儀: 《史記·張儀列傳》에 다음의 내용이 있다. “장의는 위나라 사람이다. 처음에 소진과 함께 귀곡 선생을 섬겨, 중형술을 배웠다. 소진은 스스로 재주가 장의에게 미치지 못한다

誰憐明月夜,  
腸斷聽秋砧.

달 밝은 밤에, 뉘 날 가련히 여겨줄 수 있을까  
가을 다듬이 소리 들으면 애간장 끊어지는 나를.

<校記>

제목 중 '侍御'가 蕭本·玉本·郭本·劉本·朱本·嚴評本에는 모두 '侍郎'으로 되어 있다.

제4구의 '託宿'의 '託'아래 송축본에는 "어떤 곳에는 訪으로 되어 있다(一作訪)"라는 주가 있다. 咸本·蕭本·玉本·郭本·劉本에는 모두 이 주가 없다. 제9구 '輜軒'이 蕭本·元刊二十六卷本<sup>30)</sup>·郭本·劉本·朱本·嚴評本에는 모두 '軒轅'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제12구 "驚彈落虛禽"이 蕭本·玉本·郭本·劉本·朱本·嚴評本·全唐詩本·王本에는 모두 "虛彈落驚禽"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옳다. 제15구 '借便'의 '便' 아래 송축본에는 "어떤 곳에는 力으로 되어 있다(一作力)"라는 주가 있고, 咸本에는 이 주가 없다. '便'이 蕭

는 것을 알았다. 장의는 학업을 마치자 제후들에게 유세하면서 돌아다녔다. 어느 때 초나라 제상과 서로 술을 마시는데, 초나라 제상의 벽옥이 없어졌다. 제상의 빈객들은 장의를 의심하여 이르기를, '장의는 가난뱅이로 품행이 좋지 못하다. 제상의 구슬을 훔친 것은 반드시 그자의 소행일 것이다'하고, 함께 장의를 붙들어서, 매 몇 백 대를 쳤는데, 자백하지 않으므로, 매를 그쳤다. 그의 아내가 이르기를, '아, 당신이 독서와 유세를 하지 않았던들, 어찌 이런 치욕을 당하겠습니까'하고 탄식하니, 장의가 그의 아내에게 이르기를, '내 허가 아직도 남아 있는가 없는가'하고 물었다. 그의 아내는 웃으며 이르기를, '허는 남아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자, 장의는 이르기를, '그러면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張儀者, 魏人也. 始嘗與蘇秦俱事鬼穀先生, 學術, 蘇秦自以不及張儀. 張儀已學遊說諸侯. 嘗從楚相欽, 已而楚相亡璧, 門下意張儀, 曰: '儀貧無行, 必此盜相君之璧.' 共執張儀, 掠笞數百, 不服, 釀之. 其妻曰: '嘻! 子毋讀書遊說, 安得此辱乎?' 張儀謂其妻曰: '視吾舌尚在不?' 其妻笑曰: '舌在也.' 儀曰: '足矣.')

○莊烏吟: 《史記·張儀列傳》에 다음의 내용이 있다. "越人 莊烏이 楚에서 벼슬을 하게 되었는데, 오래지 않아 병이 들었습니다. 초왕은 '장석은 본래 월의 미천한 사람이다. 지금은 초나라에서 벼슬로 부귀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월을 생각할까?'라 하니, 중사가 대답하기를 '무릇 사람은 병이 났을 때 고향을 생각하는 법입니다. 그가 월나라를 생각한다면 월나라 말을 할 것이며, 월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초나라 말로 이야기할 것입니다'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시험해본 결과 역시 월나라 말을 하였다. (越人莊烏仕楚執珪, 有頃而病. 楚王曰: '烏, 故越之鄙細人也, 今仕楚執珪, 貴富矣, 亦思越不?' 中謝對曰: '凡人之思故, 在其病也, 彼思越則越聲, 不思越則楚聲.' 使人往聽之, 猶尚越聲也.)" 이로써 莊烏吟은 고국,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吟越·思越·思鄉莊烏·楚執珪吟·病客莊·病添莊烏·聞越聲·烏音·莊烏吟(哀)·莊烏思鄉·莊烏悲吟·莊烏淚·莊烏謠·莊烏越音·越人(客)吟·越客音(吟)·越聲長苦·越謠·越賓歌 등의 전고는 이에서 나온 것이다.

30) 元刻 《唐翰林李太白集》 26卷.

本·玉本·郭本·劉本·朱本·嚴評本·全唐詩本·王本에는 모두 ‘力’으로 되어 있다. 王本에는 “어떤 곳에는 便으로 되어 있다(一作便)”라는 주가 있다.

### <詳釋>

장검을 움켜쥐고, 함께 술 한잔을 통쾌하게 마시며, 남아 가슴 속의 마음을 드러낸다. 극맹과 같은 의협을 지녔기 때문에 洛陽에서 만나, 객사를 빌어서 묵으며 함께 흥금을 토로했다. 당시에 나는 그대가 산악처럼 빼어난 풍모를 가진 것만 우리러보았지, 마음이 강과 바다처럼 깊은 지를 알지 못했다. 長安에서 다시 손을 마주 잡고, 재회하니 우리의 우정이 천금처럼 귀중하다. 그대는 감찰어사의 보좌가 되고, 나는 외람되이 한림봉공이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높이 부는 바람에 빼어나게 솟은 나무가 꺾어지고, 빈 활소리에도 놀란 새 떨어지는 신세가 되었다. 王子猷가 눈 내리는 밤에 친구 戴安道를 보고 싶은 흥이 일어나자, 그를 만나러 갔다가 흥이 다하자, 그만 배를 돌려 돌아온 것을 닮지 않으려 한다. 나는 수레 타고 그대를 꼭 찾으러 가고자 한다. 대붕이 회오리바람을 타고 구만리 장천을 날기 위해서는 힘을 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도리 꽃 되어 그들을 이루어 은택을 주기를 바란다. 웃으며 張儀와 같은言語를 하지만, 근심스럽게 莊舄과 悲吟의 소리를 내어야만 하는 처지다. 이 달 밝은 밤에, 가을 다듬이 소리 들으며 애간장 끊어지는 내 심정을 누가 가련해 여겨줄 수 있겠는가, 그대 이리라.

### <解說>

이 시의 창작연대를, 安旗·郁賢皓·詹鏞 등은 모두 天寶3년(744년)에 지은 것으로 보았다. 이 시기 이백이 한림봉공을 그만두고, 조정을 떠났다. 이에 대한 심정과 최성보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감정을 드러내었다.

詹鏞은 “이 시는 대략 天寶3년에 지은 것이다. 시에서 ‘君乃輜軒佐, 余叨翰墨林’라 한 것은 天寶2년에 두 사람이 조정에서 관직에 있었음을 말하고, ‘高風摧秀木, 驚彈落虛禽’은 참소를 받아 관직을 떠난 것을 말하고, ‘扶搖應借力, 桃李願成陰’는 崔侍御가 다시 조정에 추천해주기를 바란 것이다. ‘誰憐明月夜, 腸斷

聽秋砧은 시절이 늦가을임을 알겠다”고 했다.<sup>31)</sup>

이 시의 첫 단락(“長劍一杯酒”~“再顧重千金”)은 시인이 최성보와 結交의 과정을 서술하였다. 최성보를 劇孟으로 비유하고, 장안에서의 재회를 “重千金”에 비유하였다.

둘째 단락(“君乃輜軒佐”~“驚彈落虛禽”)은 당시 최성보는 감찰어사 보좌, 자신은 한림봉공의 직분에 있었지만, 자신이 참소를 받아 떠나게 됨을 표현하였다.

셋째 단락(“不取回舟興”~“桃李願成陰”)은 최성보를 꼭 찾아가서, 자기 뜻을 이루는데, 그의 도움이 절실함을 표현했다.

마지막 단락(“笑吐張儀舌”~“腸斷聽秋砧”)은 자신이 張儀와 같은 능력을 갖춰지만, 어쩔 수 없이 莊舄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에 있음을 나타내었다.

## 2.3 제41수 빠른 붓 놀려 獨孤 부마에게 드리며(走筆贈獨孤駙馬)<sup>32)</sup>

都尉朝天躍馬歸,<sup>33)</sup> 부마도위 입궐한 뒤 말을 질주하여 돌아오니

31) 詹鍈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1427쪽.

32) 走筆: 붓을 빨리 움직여서 글을 쓰다. ○獨孤: 駙馬都尉 獨孤 明을 말한다. 《新唐書諸帝公主列傳》에 “信成공주(역주: 현종의 공주)가 신분을 낮춰 獨孤 明에 시집을 갔다. (信成公主, 下嫁獨孤明.)”라고 했다. 또 《新唐書后妃列傳》에 “建平·信成 두 공주가 양귀비 가문과 갈등이 있고, (현종이) 이전에 하사한 大內 물품을 회수하는 상황에 이르자, 駙馬都尉 獨孤 明도 이에 관직을 잃었다. (建平·信成二公主以與妃家忤, 至追內封物, 駙馬都尉獨孤明失官.)”라고 했다. 《初學記》 卷10에 “(駙馬都尉는) 漢武帝 때 설치했는데, 御馬를 관장했다. 西漢·東漢을 지나서, 종실 및 외척과 여러 公卿들 자손들이 그것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魏에 이르러, 何晏, 大將軍인 何進의 후손이 공주의 남편으로 부마도위에 임명되었다. 그 후에 杜預가 晉 宣帝의 딸 高陸公主를 아내로 맞이하여 부마도위가 되었다. 王濟는 晉 文帝의 딸 常山公主를 아내로 맞이하여 부마도위가 되었다. 후대에는 魏晉의 제도를 항구적인 것으로 삼아서 매번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면 부마도위에 임명했다. (漢武置也, 掌禦馬, 歷兩漢, 多宗室及外戚與諸公子孫任之, 至魏, 何晏, 大將軍何進孫, 以主婿拜駙馬都尉, 其後, 杜預尚晉宣帝女高陸公主, 拜駙馬都尉; 王濟尚晉文帝女常山公主, 拜駙馬都尉, 後代因魏晉以爲恆, 每尚公主, 則拜駙馬都尉.)”라고 했다. 《通典》 卷19에 “大唐의 부마도위는 從五品이고 모두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자가 부마도위가 되었다. 開元 3년 8월에 부마도위에게 從五品の 품계를 하사하는 조서를 내리고, 정해진 규정에 의거, 紫金魚袋를 빌려주었다. 天寶 이전에는 모두 儀容이 뛰어난 자를 선발해서 부마도위로 삼았다. (大唐駙馬都尉從五品, 皆尚主者爲之, 開元三年八月, 敕駙馬都尉從五品階, 宜依令式, 仍借紫金魚袋, 天寶以前, 悉以儀容美麗者充選.)”고 했다.

香風吹人花亂飛.	향기로운 바람 사람들에게 불고 꽃들 어지러이 날리네.
銀鞍紫鞵照雲日. <sup>34)</sup>	은빛 안장 보랏빛 재갈은 구름과 해를 비추고
左顧右眄生光輝. <sup>35)</sup>	득의양양한 모습은 광휘를 내네.
是時僕在金門裏. <sup>36)</sup>	이때 나는 한림원에 있었으니
待詔公車謁天子. <sup>37)</sup>	관서에서 조서를 기다리며 천자를 알현했네.
長揖蒙垂國士恩. <sup>38)</sup>	장읍하며 國士 은혜 내려주심 받았으니
壯心剖出酬知己. <sup>39)</sup>	정성 다하여 날 알아주는 이에게 보답했네.

- 33) 都尉: 駙馬都尉. ○朝天: 입궐하다. 황제를 배알하다. ○躍馬: 말을 질주시키다.
- 34) 紫鞵: 자색의 실로 만든 말의 재갈. <別夏侯故章詩>의 “白馬는 황금 재갈, 靑驪는 자색 재갈(白馬黃金期, 靑驪紫絲鞵.)”에 용례가 있다. ○雲日: 구름과 해. 태양을 말하기도 한다.
- 35) 左顧右眄: 좌고우면하다. 득의한 모습을 형용한다. <文選> 卷4 曹植<오계중에게 보내는 글(與吳季重書)>의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살펴보아도 비할만한 사람이 없는듯하다고 할 것이니, 그대의 장대한 포부가 아니겠습니까! (左顧右眄, 謂若無人, 豈非吾子壯志哉!)”에 용례가 있다.
- 36) 金門: 金馬門을 말한다. 원래는 漢代의 未央宮 궁문. 문 옆에 銅馬가 세워있었기 때문에 金馬門이라 하였다. 漢武帝가 일찍이 學士로 하여금 이곳에서 조서를 기다리도록 했다. <三輔黃圖>에 “金馬門은 관리의 관서이다. 한무제가 大宛馬를 얻어 그 모습을 銅像으로 제작하고 署門에 세워 두었다. 그러므로 金馬門이라 하였다. 東方朔·主父偃·嚴安·徐樂 모두 金馬門에서 조서를 기다렸다. (金馬門, 宦者署. 漢武帝得大宛馬, 以銅鑄像, 立於署門, 因以爲名. 東方朔·主父偃·嚴安·徐樂皆待詔金馬門.)”라고 했다.
- 37) 待詔公車: 公車(官車, 漢代 官署 이름)에서 조서를 기다린다. <漢書·東方朔傳>에 “동방삭의 글은 불손하면서도 자신을 높이며 칭찬했지만, 황제는 그를 매우 특별한 자라고 생각하여 公車署에서 다음 조서를 기다리게 했다. (朔文辭不遜, 高自稱譽. 上偉之, 令待詔公車.)”라고 했다. 顏師古는 “公車令(역주: 한나라 때 궁문을 지키며 출입자를 단속하던 관원)은 衛尉(역주: 관명, 衛士를 통솔하여 황궁을 수비하던 관원)에 속했으며, 상서하는 사람이 이르렀던 곳이다. (公車令屬衛尉, 上書者所詣.)”라고 주석하였다. 詹鏞은 “公車가 여기서는 翰林院을 가리킨다”라고 했다. (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1436쪽) ○待詔: 이에 대해 <舊唐書·職官志二>에 다음의 내용이 있다. “翰林院. 天子가 大明宮에 있으면, 한림원은 右銀臺 문 안에 있다. 興慶宮에 있으면, 한림원은 金明門 안에 있다. 만약 西內에 있으면, 한림원 顯福門에 있다. 만약 東都·華清宮에 있으면 모두 조서를 기다리는 곳이 있었다. 조서를 기다리는 자는 문장·경학·煉丹·스님과 도사·점과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기에·글씨와 바둑에 능한 사람이다. 각 별체에 머물러 있다가 해지면 퇴청했다. 중시 받은 사람은 문장에 뛰어난 사람이다. (翰林院. 天子在大明宮, 其院在右銀臺門內. 在興慶宮, 院在金明門內. 若在西內, 院在顯福門. 若在東都·華清宮, 皆有待詔之所. 其待詔者, 有詞學·經術·合練·僧道·荀祝·術藝·書奕. 各別院以廩之, 日晚而退. 其所重者詞學.)”
- 38) 國士: 나라의 걸출한 인재. <史記·刺客列傳>에 “豫讓이 말하였다. …… ‘智伯이 저를 國士로서 대우했기 때문에 저도 국사로서 그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요.’(豫讓曰 …… ‘至於智伯, 國士遇我, 我故國士報之.))”에 용례가 있다. 蕭士贊은 “이는 이백이 자기 일을 서술한 것이다. (此太白敘述己事.)”라고 했다. (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436쪽 재인용)
- 39) 壯心剖出: ‘剖心析肝心’의 뜻으로, 즉 진심과 정성으로 사람을 대하다. ○壯心: 원래는 雄壯

- 一別蹉跎朝市間,<sup>40)</sup> 헤어진 뒤로 조정과 저자에서 허송세월하여  
 靑雲之交不可攀.<sup>41)</sup> 고관과 사귄 수 없었네.  
 儻其公子重迴顧,<sup>42)</sup> 혹 공자에게서 다시 돌아봐 주신다면  
 何必侯嬴長抱關.<sup>43)</sup> 어찌 꼭 후영처럼 오래 문 지키는 은사가 되랴.

하고 豪邁한 뜻. 마음에 품은, 훌륭하고 큰 뜻.

- 40) “一別蹉跎朝市間”句: 이 구를 郁賢皓는 “헤어진 이후로 나는 都市에서 허송세월 보냈다”라고 해석했다. (郁賢皓, 《新譯李白詩全集》, 臺北: 三民書局, 2011, 484쪽) 詹福瑞 등은 “경사를 떠난 이래로 허송세월 보내다”라고 해석했다. (詹福瑞 等譯, 《李白詩全譯》,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7, 365쪽) ○蹉跎: 허송세월 보내다. ○朝市: 市朝와 같은 말로, 조정과 저자.
- 41) “靑雲之交不可攀”句: 《史記·黃帝紀》에 “관직 이름은 모두 雲으로 명명했기에 雲師라고 했다. (官名皆以雲命爲雲師.)”라고 했다. 《左傳·昭公十七年》에 “옛날 황제씨는 구름으로 관직 이름을 명명했기에 雲師라고 해서, 雲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昔者黃帝氏以雲紀, 故爲雲師而雲名.)”라는 기록이 있다. 이에 대해 杜預는 “황제가 명을 받음에 雲瑞(역주: 상서로운 구름의 기색)가 있었기 때문에 구름으로 관직을 명명하니, 百官 및 社長(역주: 군대 통솔자)이 모두 구름으로 호명하였다. (黃帝受命有雲瑞, 故以雲紀事, 百官師長皆以雲爲名號.)”라고 주석하였다. 또 《史記·五帝本紀》에 “(황제가)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일정한 곳이 없었고, 장수와 병졸로 진영의 호위를 삼았다. 관직 이름은 모두 구름으로 명명하여, (군대를) 雲師라 했다. (遷徙往來無常處, 以師兵爲營衛, 官名皆以雲命, 爲雲師.)”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裴駰이 應劭의 말을 인용하여 “春官은 靑雲, 夏官은 縉雲, 秋官은 白雲, 冬官은 黑雲이라 했다. (春官爲靑雲, 夏官爲縉雲, 秋官爲白雲, 冬官爲黑雲.)”라고 하였다. ○이 구에 대하여, 詹福瑞, 郁賢皓는 모두 “전에 사귀었던 청운지사들은 지위가 높아서 오를 수 없다”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靑雲之交”는 고관과 사귄을 의미한다. 즉 獨孤駙馬처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과 사귄 수 없다는 의미다. 朱謙이 “그대는 靑雲의 위에 있고, 나는 쫓겨나서, 사세가 서로 현격하여 서로 관계 맺을 수 없다. (君在靑雲之上, 我當竄逐之餘, 勢相懸絕, 不復可相攀.)”라고 한 것(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1437쪽 재인용) 詹鏞이 “고찰컨대, 獨孤 明이 황제의 사위가 된 것은 바로 단번에 높은 지위에 오르고 관운이 형통할 때 해당하기 때문에 ‘靑雲之交不可攀’이라 했다. (按, 獨孤明爲帝婿, 正值直步靑雲官運亨通之時, 故云靑雲之交不可攀也.)”라고 한 것(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1436쪽)은 연구자의 관점과 같은 취지이다. ○攀: (무엇을 잡고) 기어오르다. 지위가 높은 사람과 관계 맺다.
- 42) 儻: 만일, 혹시~라면.
- 43) “何必侯嬴長抱關”句: 《左傳·魏公子列傳》에 관련 전고가 있다. “위나라에 侯嬴이란 은사가 있는데 70살에 집이 가난해 大梁 땅의 夷門 문지기로 있었다. 공자가 이를 듣고 후한 예물을 보내며 만나보기를 청했다. 후영이 이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 공자는 이에 주연을 크게 열고 만객들을 모았다. 자리가 정해지자, 공자는 수레와 기마를 거느리고 왼쪽 자리를 비운 채로 몸소 이문으로 후영을 맞이하러 갔다. 후영은 다 찢어진 옷을 입고 곧 수레에 올라 공자의 상석에 앉으며, 사양하지 않았다. …… 후영은 또 공자에게 말했다. ‘신에게는 시장 푸줏간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부디 수레와 기마를 돌려 그곳에 들려 주셨으면 합니다.’ 공자가 수레를 몰아서 시장에 들어가니, 후영이 수레에서 내리고 그 친구 朱亥를 만나 일부러 오랫동안 서서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공자를 몰래 살폈다. 공자의 안색은 점점 완화해졌다. 후영은 공자의 얼굴빛이 끝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이내 친구와 작별인사를 하고 수레에 올랐다. 집에 이르자 공자는 후영을 상석으로 이끌

## &lt;校記&gt;

제1구의 '躍馬歸'의 '歸'가 朱本에는 '蹄'로 되어 있다. 제4구의 '右眙'의 '眙'이 咸本·蕭本·元刊二十六卷本·郭本에는 모두 '盼'로 되어 있다. 王本에는 '盼'로 되어 있다.

## &lt;詳釋&gt;

부마도위가 입궐한 뒤에 말을 질주하여 돌아온다. 향기로운 바람은 사람들에게 불어오고 꽃들은 어지럽게 날린다. 그의 은빛 안장 보랏빛 재갈은 구름과 해를 비추고, 특의양양한 모습은 광휘를 내고 있다. 당시에 나는 한림원에 있었는데, 관서에서 조서를 기다리며 천자를 알현했다. 뵈고서 장음하며 그대가 나에게 내려주시는 國士라는 은혜받았기에, 진심과 온 정성으로 날 알아주는 이에게 보답했다. 그러나 그대와 헤어진 이래로 조정과 저자에서 허송세월하여, 그대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사귄 수 없었지만, 그러나 혹여 공자께서 다시 돌아봐 주신다면, 어찌 꼭 후영처럼 문을 오래 지키고 있는 은사가 되겠는가. 나에게 깊은 관심가져주기 바라네.

---

어 얹히고 빈객들에게 두루 소개하니, 빈객들이 모두 놀랐다. 주연이 무르익자 공자가 일어나 후영의 장수를 기원했다. 그러자 후영이 공자에게 말했다. '오늘 저 역시도 공자를 위한 일을 충분히 했습니다. 저는 이문의 문지기에 지나지 않으나 공자께서 친히 수레와 기마를 몰고 오셔서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로 저를 맞이해주셨으며, 지나지 않아도 좋은 장소까지 오늘 공자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공자의 명성을 높이고자 오랫동안 서서 공자의 수레와 기마를 시장 안에 세워 두고 친구와 만나며 공자를 살펴보았는데 공자께서 더욱더 태도를 공손히 하셨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저를 소인배라 여기고, 공자는 선비에게 몸을 낮출 줄 아는 분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윽고 주연이 끝나자 후영은 마침내 上客이 되었다.(魏有隱士曰侯嬴, 年七十, 家貧, 爲大梁夷門監者. 公子聞之, 往請, 欲厚遺之. 不肯受, …… 公子於是乃置酒大會賓客, 坐定, 公子從車騎, 虛左, 自迎夷門侯生. 侯生攝敝衣冠, 直上載公子上坐, 不讓, …… 侯生又謂公子曰: '臣有客在市屠中, 願枉車騎過之.' 公子引車入市, 侯生下見其客朱亥, 俛倪故久立, 與其客語, 微察公子. 公子顏色愈和, …… 生視公子色終不變, 乃謝客就車. 至家, 公子引侯生坐上坐, 遍贊賓客, 賓客皆驚. 酒酣, 公子起, 爲壽侯生前. 侯生因謂公子曰: '今日嬴之爲公子亦足矣. 嬴乃夷門抱關者也, 而公子親枉車騎, 自迎嬴於衆人廣坐之中, 不宜有所過, 今公子故過之. 然嬴欲就公子之名, 故久立公子車騎市中, 過客以觀公子, 公子愈恭. 市人皆以嬴爲小人, 而以公子爲長者能下士也.' 於是罷酒, 侯生遂爲上客.)" ○抱關: 문을 지키다. 貧賤을 비유한다.

## &lt;解説&gt;

이 시의 창작연대를, 《李白詩文繫年》, 詹鍇, 郁賢皓는 天寶3년, “이백이 조정을 떠난 이후”에 지은 것으로 보았다. 安旗는 이 시를 天寶12년(753년), 53세에 지은 것으로 보며, “현종의 딸 信成공주가 獨孤 明에 시집간 것이 《新唐書·諸帝公主列傳》에 보인다”고 했다.<sup>44)</sup> 이에 대해, 詹鍇은 “《新唐書》 권67 <后妃傳·楊貴妃傳>의 ‘建平·信成 두 공주가 양귀비 가문과 갈등이 있고, (현종이) 이전에 하사한 大內 물품을 회수하는 상황에 이르자, 駙馬都尉 獨孤 明도 이에 관직을 잃었다(建平·信成二公主以與妃家忤, 至追內封物, 駙馬都尉 獨孤 明失官.)’를 고찰하건대, 이는 시기가 天寶12년 이전이라, 이백이 천보 12년에 獨孤駙馬에게 시를 바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sup>45)</sup>

이 시는 마땅히 조정을 떠난 뒤에 지은 것이다. 첫 단락(“都尉朝天躍馬歸”~ “左顧右盼生光輝”)은 부마도위 獨孤 明이 입궐했다가 돌아오는 득의양양한 모습, 형상을 생동적으로 묘사했다. 둘째 단락(“是時僕在金門裏”~ “壯心剖出酬知己”)은 한림봉공시절의 독고 명에게 받은 은혜를 표현하였다. 끝 단락(“一別蹉跎朝市間”~ “何必侯嬴長抱關”)은 獨孤 明이 다시 한번 자기를 배려해주어, 이로써 실의에서 벗어나 자기 뜻을 펼치고 싶은 바람을 표현하였다.

## 3. 결 론

이상 贈詩 3편은 시인이 뜻을 얻지 못하고 또한 조정을 떠난 이후에 불우, 실의 및 곤궁의 상황에서 지은 작품이다. 시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知己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싶은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贈新平少年>은 이백이 개원 18년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장안으로 들어

44) 安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中), 成都: 巴蜀書社, 1990, 1010쪽.

45) 詹鍇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1438쪽.

왔지만, 그 당시 현실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곤궁에 처한 상황과 신세 및 갈망을 드러내었다. 시 가운데 자신의 곤궁 및 신세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시인은 “함정 속 호랑이”, “토시 위 매”로 자신의 신세를 표현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자 하는 갈망을 표현하였다. 시인은 韓信의 전고를 인용하여 시인의 지향을 드러내었다.

<贈崔侍御>는 시인이 天寶 3년(744)에, 한림봉공을 그만두고 조정을 떠난 뒤에 지은 것이다. 그 때문에 이 작품에는 조정을 떠나게 된 상황, 심리상황 등이 나타난다. 시인은 또 최성보와의 結交과정 및 그의 품모 및 심흥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최성보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은근하고 간절하게 표현했다. 시인은 작품의 끝에, 비통의 감정을 드러내어, 강한 울림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작품의 역주 연구에서, “笑吐張儀舌”, “愁爲莊鳥吟” 두 구에 대한 해석에서, 논증을 통해 기존과 다른 해석을 했다.

<走筆贈獨孤駙馬> 역시 마땅히 조정을 떠난 뒤에 지은 것이다. 駙馬都尉 獨孤 明에게 자신을 愛顧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로써 실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뜻을 표현하였다.

이 작품의 역주연구에서, “靑雲之交不可攀” 구에 대한 해석에서, 논증을 통해 기존과 다른 해석을 했다.

이상 贈詩 3편에서는 특히 典故, 比喩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자신의 상황에 부합하는 전고를 때로는 ‘直用’ 때로는 ‘反用’하였다. 비유의 사용도 때로는 ‘直喩’ 때로는 ‘暗喩’했다.

이상의 贈詩는 이백과 교류했던 인물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당시 시인의 처지, 환경 등의 인생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 &lt; 參考文獻 &gt;

- 王琦 輯注, 《李太白全集》, 北京: 中華書局, 1977.
- 瞿蛻園·朱金城 校主, 《李白集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 韓嬰 著, 許維遜 集釋, 《漢詩外傳集釋》 권9, 北京: 中華書局, 1980.
- 宋敏求·曾鞏 等編, 《李太白文集》, 成都: 巴蜀書社, 1985.
- 安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 成都: 巴蜀書社, 1990.
- 彭定求 等編,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92.
- 郁賢皓 主編, 《李白大辭典》, 桂林: 廣西教育出版社, 1995.
- 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 詹福瑞 等譯, 《李白詩全譯》,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7.
- 陳貽焮 主編, 《增訂注釋全唐詩》,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2001.
- 蕭士贇, 《分類補注李太白詩》,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 郁賢皓 注譯, 《新譯李白詩全集》, 臺北: 三民書局, 2011.
- 이영주·임도현·신하윤 역주, 《이태백 시집》, 서울: 學古房, 2015.
- 郁賢皓 注譯, 《新譯李白文集》, 臺北: 三民書局, 2017.
- 郁賢皓 校注, 《李太白全集校注》, 南京: 鳳凰出版社, 2017.
- 薛天緯 選注, 《李白詩選》,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7.

## &lt; Abstract &gt;

A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Li Bai's *Presented Poems*(10)— From the 39<sup>th</sup> Poem to the 41<sup>st</sup> Poem

Cho, Sungchun

This paper translates and reviews three poems written by Li Bai(李白). The first poem consists of two paragraphs. The first paragraph describes that Han Xin(韓信), who was insulted by ruffians when he was young, finally made a contribution by helping the emperor after enduring the humiliation and

rewarded the person who helped him after his success. In the second paragraph, unlike Han Xin, the poet complains his ill fate that he cannot be recognized by people even though he is talented. The second poem consists of four paragraphs. The first paragraph is a story about meeting Cui Chengfu(崔成甫) twice in Luoyang(洛陽) and Changan(長安), praising his outstanding character. The second paragraph describes that the poet and Cui Chengfu were in office together, but the poet was soon expelled from his official post. The third paragraph describes his hope that Cui Chengfu who has found him, will help him to unfold his will. The fourth paragraph expresses his desire that Cui Chengfu will take care of his desperate circumstances. The third poem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agraphs. The first paragraph depicts the triumphant look of a son-in-law of the king who returns from the royal court. The second paragraph shows the son-in-law of the king treated the poet well while he took up the official post in the royal court. The third paragraph describes his hope that the son-in-law of the king will lead him well.

Key words: Translation, Li Bai(李白), Han Xin(韓信), Cui Chengfu(崔成甫), the son-in-law of the king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20. 10. 29	2020. 11. 5 - 11. 24	2020. 11. 28	2020. 12. 7	2020. 12. 31